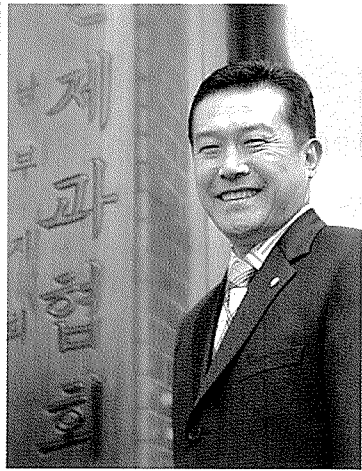




# 역사와 전통 자랑하며 큰 사랑 펼치는 수호천사

2004년 모범지회로 선정된 남부지회

(사)대한제과협회의 주춧돌인 전국의 지회 지부는 각 지역적 특성에 맞는 운영으로 회원들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영등포구·금천구·독산구 3개 구가 합쳐져 회원들의 권익과 기술 발전을 위해 똘똘 뭉친 남부지회의 활동을 소개한다. 남부지회는 효율적인 지회운영으로 2004년 모범지회로 선정됐다. 글 박소희 기자·사진 전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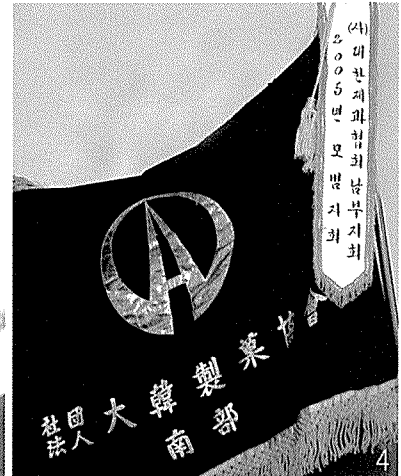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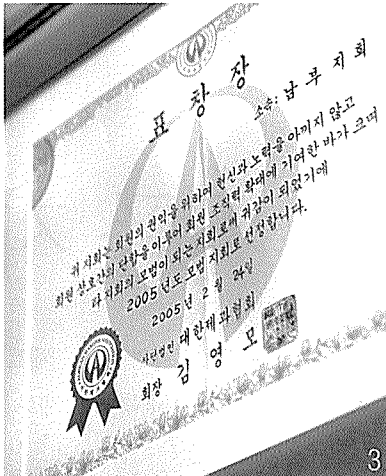


최용길 남부지회장

지난 2월 24일 (사)대한제과협회 중앙회 제42차 정기총회에서 남부지회는 2004년 한 해 동안 뛰어난 회원관리와 지회 운영을 인정받아 대전광역시지회, 울산광역시지회와 함께 '모범지회'로 선정되는 경사를 맞았다. 올해 제37차 정기총회를 개최한 남부지회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며 든실한 지회 운영을 위해 애쓴 만큼 임원들과 회원들 모두 모범지회로 선정된 것에 대해 감회는 남다를 수밖에 없다.

“그동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임원들과 사무국장, 고문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지회 일에 앞장서고, 회원관리를 잘해주고 회원 업소 대부분이 어려운 자영업자들로 이루어져 힘든 가운데서도 혼연 일체가 되어 지회를 위해 애써 준 덕분에 얻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잘하라는 의미겠지요.”

제8대 지회장을 맡고 있는 최용길 지회장은 연신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동안 동거동락하며 고생한 임원들과 사무국장, 고문들에게 공을 돌렸다.



1 3개 구를 하나로 모으는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남부지회 임원들. 2 서울남부보호관찰소와 불우한 보호관찰대상자,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사랑의 푸드뱅크 협약식. 3, 4 2004년 모범지회로 선정된 남부지회는 모범지회 상징인 표창장과 깃발을 받았다.

“ ‘평생 과우회’ 는 남부지회의 자랑이다. 과우회 회원들은 “윗사람이 먼저 실천을 보여야 회원들도 따른다.” 라는 기본 원칙 아래 제과인 스스로가 어려웠던 과거를 잊지 않고 후배 제과인들을 살뜰하게 챙기며 형편이 어려운 회원을 도우며 지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

### 3개 구가 합쳐 하나로 똘똘 뭉쳐진 지회

남부지회는 영등포구, 금천구, 독산구 이렇게 3개의 구가 합쳐져 운영되는 지회이다. 1968년에 보금자리를 꾸며 지금의 위용을 갖춘 남부지회는 양천구와 강남구, 서초구까지 관할했던 거대지회였다. 남부지회에서 양천구와 강남구, 서초구가 독립해 나간 후 영등포구, 금천구, 독산구만 관할하게 된 이후 멀리 떨어진 3개의 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남부지회는 각 구별로 25명의 임원들이 활동 구역을 나눠 회원업소를 관리하고 있다. 두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이사회를 열어 가장 현안이 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해결책을 찾고, 서로 긴밀하게 각 지역의 제과점 상황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는다.

요즘 이사회의 가장 큰 화두는 원도우 베이커리와 프랜차이즈 업체 간의 제품 격차를 줄이는 방안 모색이다. 지역 특성상 영세한 자영 제과점이 많은 남부지회는 다른 곳처럼 세련된 최신 제품을 선보이고 싶어도 ‘맘모스빵’, ‘버터크림 케이크’, ‘소보로빵’ 등 옛날 맛을 고수하는 고객들이 많아 제품력에서 프랜차이즈 업체보다 다소 뒤처진다는 걱정이 많다. 이런 격차를 줄여나가기 위해 이사회 임원을 원도우 베이커리 업주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업주도 골고루 참여시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는 한편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한 안 좋은 선입견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요즘 한창 대두되고 있는 프랜차이즈 업체의 이동통신사 제휴카드 문제 등을 놓고 불거졌던 논란에 대해 서로 공생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잘못된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는 한편 매출 하락을 남 탓으로만 돌리기보다는 기술 개발을 통해 제품력을 향상시켜 고객을 사로잡는 의식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 평생 과우회, 푸드뱅크 사업

남부지회가 자랑으로 삼는 평생 과우회와 푸드뱅크 사업은 얼핏 들으면 여느 지회·지부에서도 활동하는 것과 별반 차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꼼꼼하게 따져보면 내용면이나 활동면에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남부지회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던 역대 이사들과 앞으로 도약의 책임을 지닌 현재 이사들이 회원으로 가입된 평생 과우회는 40대 초반부터 70대 후반까지 회원들의 연령대가 다양하다. 특히 주목할만한 점은 남부지회 지역을 떠나 제과업을 계속하는 제과인도 본인이 원하면 계속 남부지회 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탄생한 이름이 바로 ‘평생 과우회’이다. 과우회 회원들은 “윗사람이 먼저 실천을 보여야 회원들도 따른다.”라는 기본 원칙 아래 제과인 스스로가 어려웠던 과거를 잊지 않고 후배 제과인들을 살뜰하게 챙기며 형편이 어려운 회원을 도우며 지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또한 1992년부터 벌이고 있는 푸드뱅크 사업은 소년소녀가장, 무의탁 노인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하고 있다. 2004년 11월에는 서울남부보호관찰소와 불우한 보호관찰대상자, 불우이웃에게 사랑의 정을 전달해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다는 내용의 ‘사랑의 푸드뱅크 협약’을 맺고 적극적인 푸드뱅크 사업을 펼치고 있다. 회원들이 똘똘 뭉친 가운데 선배와 후배가 따뜻한 정을 나누며 어려운 형편에서도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남부지회가 모범지회로 선정된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